‘탈 광주’ 청년들 잡으려 지자체가 적극 나섰다

동구, 청년센터 거점 멘토링·생활밀착형 프로그램 확대
북구, 구직단념 청년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 본격 추진
남구, 주거안심물품·취업장려금 등 생활·취업 모두 지원

광주 지역 자치구들이 청년 취업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광주시 동구는 올해 청년 거점을 중심으로 일과 생활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운가 하면, 북구는 구직 단념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지원에 나서는 등 ‘청년 일자리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구는 동명동 222-2번지 일원에 조성된 ‘동구 청년센터 아지트’를 거점으로, 연간 100회 이상의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표 프로그램인 ‘영 파일럿(Young Pilot) 멘토링’은 청년과 현직 전문가를 1대1로 연계하는 진로·취업 멘토링으로 상시 운영된다.

공기업, IT,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형 멘토를 청년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작성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퇴근 후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된다.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 ‘나에게 건네는 위로의 한마디’ 등의 주제로, 식사 자리에서 서로의 고민과 경험을 나누며 청년들의 정서 회복과 관계 형성을 돕는다.

또 강연 프로그램 ‘영 스피커(Young Speaker)’는 청년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연사들을 초청해 도전과 성장, 1인 미디어 브랜딩,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주제로 운영된다.

청년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형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한다. 동구 전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웰컴박스 지원사업을 비롯해 취업·부업·재테크 관련 특강, 기업탐방형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생활 안정과 커리어 성장을 함께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생활밀착형 신규 사업인 ‘도전·실행 실험실’ 프로그램도 새롭게 선보인다. 자산관리와 운동 등 청년들의 일상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목표 달성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멘토 러닝 톡(Talk)’을 병행할 예정이다.

북구도 구직을 단념했거나 구직 의욕이 저하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북구에 따르면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직업훈련 등으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총 11억9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광주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청년 234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최근 6개월 이내 취·창업 이력이 없는 구직단념 청년을 비롯해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등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는 1대1 밀착 상담을 통해 구직 준비 수준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진단받고, 단기(5주 이상), 중기(15주 이상), 장기(25주 이상) 등 기간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1인당 최대 350만원의 참여 수당과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이후 3개월 이상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돼 노동시장으로의 안정적인 진입을 돕는다.

광주시 남구도 현관 CCTV 설치·대여와 24시간 출동서비스를 묶은 ‘주거 안심물품’ 지원을 시작으로 면접정장 무료대여, 구직용 증명사진 촬영, 자격증 응시료 지원, 취업장려금 지급까지 생활·취업 전 과정을 겨냥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남구는 ‘청년 1인가구 주거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오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에서 1인 가구로 거주 중인 청년(19세~39세) 40명이다. 지원내용은 현관 CCTV 설치·대여, 실시간 영상 확인, 24시간 출동서비스 등이다.

구직 청년을 위한 지원도 동시에 추진된다. 남구는 면접 준비 비용을 줄이기 위한 ‘구직청년 면접정장 대여’ 사업을 오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운영한다. 1인당 연 3회까지 가능하며 1회 대여기간은 3박 4일이다. 남성은 자켓·셔츠·바지·넥타이, 여성은 자켓·블라우스·스커트(또는 바지) 등을 빌릴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력서 사진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한 ‘구직청년 증명사진 촬영 지원’도 같은 기간 지원된다. 대상은 워크넷(고용24)에 구직신청 등록을 완료한 청년으로 사진 촬영과 간단한 보정, 당일 인화(3×4cm)를 제공한다.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도 2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사업은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하며 1인당 2회,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국가기술자격증 540종, 어학 16종, 한국사능력시험 등을 취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자격증을 포함해 응시 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광주시 서구는 ‘서구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청년이 중심이 되어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구는 진로설계부터 취업을 지원하는 ‘서구 청년 PI스쿨’을 통해 개인의 성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와 활용방법을 교육하고, 청년이 강의 경험을 쌓고 현장 피드백을 통해 강사 역량 강화를 할수 있도록 돕는 ‘재능공유 청년강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독서도 MBTI 취향 따라”

광주시 서구는 서빛마루도서관 4층 책마루에서 MBTI 성격유형 검사와 도서를 접목한 ‘MBTI 취향독서’ 코너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서관 이용자들이 유형별 추천 도서를 찾기 위해 MBTI 성격유형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 서구 제공〉

‘배리어프리’ 민원실로 차별 없는 행정서비스 실현

남구청, 무장애 키오스크 설치 등

광주 남구청 민원실이 휠체어 사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14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반영, 구청 종합민원실(1층)과 관내 무인 민원발급기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관련 기능을 업그레이드키로 했다.

구청 종합민원실의 경우 이달 말까지 ‘무장애 키오스크’를 새로 설치한다.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이용하도록 최대 20㎝까지 높낮이를 조절하는 리프트와 근접 센서도 갖춰 민원인이 접근하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한다.

긴급 호출 기능도 추가하고 버튼마다 점자 안내 표시 및 글자 설명을 추가하고 스피커와 이어폰을 통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키오스크 연결시 소리를 차단하는 서비스도 지원한다.

휠체어를 탄 민원인이 남구청 1층 민원실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광주시 남구 제공〉

관내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 28대 중 미충족 발급기 25대에도 음성지원 키패드를 설치하고 저시력자를 위한 글자 크기 등을 변경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무등산 품은 의재 허백련 선생 유적, 문화공간으로 복원

동구, 설계 착수보고회…예술 접목 야행관광 조성사업도 추진

무등산국립공원 내 의재 허백련 선생 유적지가 복합 문화공간으로 되살아 난다.

광주시 동구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무등산 의재문화유적 복원 사업’과 관련해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근대 남종화(산수화 회풍)의 대가인 의재 허백련 선생의 예술정신을 보존·계승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등산 춘설헌 일원(운림동 86) 문향정과 춘설차 공방, 관풍대 등 주요 건축물과 주변 공간이 복원·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동구는 대상지 전반에 걸쳐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조경 및 외부 공간 조성도 병행한다.

무등산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사업 대상지의 특성을 감안해 설계 단계부터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보고회에는 설계용역을 맡은 최욱 건축가(원오원 아키텍스)와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배경과 방향, 보완 검토 사항,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동구는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각종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의재문화유적 복원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편 동구는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오는 2027년까지 무등산 일원에 총 272억여원을 투입해 ‘예술접목 야행관광 공간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롯데마트 광주 상무점에 창고형약국 입점 추진

광주시약사회, 입점 재검토 요구

광주시약사회는 14일 롯데마트 맥스 광주 상무점에 추진되는 창고형약국 관련, 롯데쇼핑 등에 공문을 보내 입점 계획 재검토를 전제로 한 간담회를 요구했다.

약사회는 “대형 유통시설 내 대량·저가·무제한 선택 방식으로 의약품이 판매되는 창고형 약국 모델은 여러 지역에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면서 “롯데마트가 지역사회와 의료·보건 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약국 모델을 도입하려는 것은 지역 보건 안전과 공공의료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간담회는 의약품 안전과 지역사회 보건 체계, 대형 유통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시 약사회는 창고형 약국 1곳이 개설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의약품을 미리 공급받은 정황이 포착됐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